

설거지

윤 제철(시인)

나나 남들이 밥 먹고 남은 흔적
쌓아두고 바라보기 싫었다
먹을 땐 누가 뺏을까봐
욕심내어 움켜잡고 정을 주었는데

돌아서서 배가 부르니
먹고 난 찌꺼기나 기름기
보기도 싫지만 만지기도 싫었다
뱃속에 들어가면 모두 섞여서
이 모양이나 다를 게 없을 텐데

하나하나 씻어내다 보면
홀가분하고 깨끗하게 비워지는 게
우리들의 때를 닦는 거였는데
그동안 마다않고 치워준 당신
그 사랑이 가까이 다가왔다

한 끼의 밥상을 받고 맛있게 먹을 땐 고마움을 알았다 할지라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먹고 난 찌꺼기 수북이 쌓인 싱크대 돌아보지 않았다. 먹은 음식 뒤섞인 뱃속에 들여다 보면 별다른 모습이 아닐 텐데 차별을 하고 돌아앉은 사람들은 냉정했다.

마다 않고 하나 하나 손으로 씻어나가는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몸에 묻은 때를 벗겨 주듯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설거지해주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싱크대 앞에서 가족의 누구라도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하려고 대신 나서는 당신의 손길을 진작 느끼지 못한 화자의 이기적인 처신에 참회를 삼켜야 했다.

화초 가꾸기

김 병 헌(수필가)

우리 집 옥상위에는 각종 화분과 화초나무로 정원을 가꾸어 놓았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식탁위로 천정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상히 여겨 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옥상으로 올라가 보았다. 옥상에서는 각종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있고, 벌, 나비 등이 날라와 꽃술의 화분(花粉)을 연신 뒤지고 있었다.

옥상에 군데군데에 실금 간곳이 이었다. 아마도 이 실금 간 곳으로 물이 들어와 아래층으로 흘러 떨어 진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갔다. 방수업자를 불러 자문을 구하였다. 나의생각과 같았다. 꽃과 나무를 모두치우고 아깝지만 모두 버리고 새로이 방수를 하자는 것이다, 15년 동안이나 가꾸었던 나무와 화초를 모두일시에 버리자니 눈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 이었나보다.

작년에 받아두었던 씨앗을 모두 봄에 뿌려 분갈이를 하여 꽃을 피우게 한다. 여러 가지 꽃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백일홍 과꽃 등을 많이 심었다. 특히 많이 심은. 이유는 꽃이 오래도록 피어있어 아름답다. 우리 꽃이 훨씬 좋다. 집 옥상에 꽃을 가꾼 지도 어언 30년이 넘었다. 이사 올 때 기념으로 대문 옆에 심은 은행나무는 너무 커서 집안으로 뿌리가 뻗어 벽이 갈라지고 하여 구청의 도움을 받아 작년여름에 잘라냈다.

여름에 대문을열어놓으면 집안의 푸른 나무가 무성하여 안의 마당이 시원하게 보여 지는 할머니들이 들어와 쉬어가며 “이집은 사막의 오와시스 같네” 하며좋아하신다. 그러면 아내는 한 수 더 떠서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꽃들을 설명하며 옥상으로 안내한다. 옥상에는 평상이 있어 앉아서 이야기하기가 좋다. 모두 옥상에 올라

오시어 시원하여 좋고 삼각산 세봉우리에 매달려있는 등반객들의 씩씩한 모습이 좋다고 한다.

가을에 씨앗을 받아 봄에 뿌리는 농부처럼 이제는 400화분이 매일 아침부터 나를 기다린다. 아침저녁으로 자식 돌보듯 정성을 들여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한다. 오늘도 기대를 걸고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의 발길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혹여나 화분 안의 꽃들이 불편한 데는 없는지 표정을 보고 미리 알아차려 보살펴줘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우리와 같은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꽃들을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냥 마구 다루다면 금방 시들거나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말 것이다. 항상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꽃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나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다.

외출을 할 때라도 다녀와서 살펴보고 이상 유무를 찾다보면 반가워하는 모습에 피로가 풀린다. 언제나 일기예보를 알아보고 대비를 해야 한다. 함께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기후에 민감한 이들이 버텨내야 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보답하는 데에 대한 상부상조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화초 가꾸기로 시작한다.